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최정민* · 최기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 Basic Study on the Koreanness of Contemporary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Choi, Jung-Min* · Choi, Key-S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asic foundation for the discourse of Koreanness of contemporary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by way of searching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Koreanness through analysis of Koreanness discourses.

The results are that discourses of Koreanness are to be classified in aesthetics type, spatial-temporal type, and cultural type. Aesthetics type is understood as style in terms of formal and design representation, planning principles of spatial composition, and immanence in terms of philosophy. Spatial-temporal type is understood as contemporaneity. This is classified as the concept of connoting of tradition, and separating and keeping a distance from tradition. Cultural type is prescribed as cultural identity. This is classified as unity, generality and individuality. The intension of Koreanness of these types is represented as an aspect changing and shifting from one regulation to another regulation. First, in the concerns of substantial archetypes like Korean original form, decorative element, spatial composition, aesthetic perception and philosophy, Koreanness shifts to the point of view of contemporaneity which is created and defined in history. Second, Koreanness as contemporaneity shows a trend of shifting the point of view which is to be found through the reconsideration on modern history and modernism. Third, Koreanness defined as cultural identity shows a trend to emphasize the differences in other cultures and includes all the modern cultural agents. The number of views understood as individuality and denial are small but provide important points. Programmatic definition of Koreanness is not suitable.

This basic study uses a stipulative or operational definition of Koreanness in many ways such as spatial and regional identity. Koreanness study for Korea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requir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modernity and colonization relating to identity. Also, it is needed to elaborate on the discourse to divide the meaning of a concept of identity.

Key Words: Discourses, Cultural Identity, Tradition, Contemporaneity

Corresponding author: Jung-Min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82-2-2210-5303, E-mail: jmchoi117@empal.com

1. 서론

서구적 개념의 조경이 도입되어 전문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이후, 길다고는 볼 수 없는 시간 동안에 한국 조경은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조경은 정치적 공약과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조경에 대한 관심은 공동주택단지에서와 같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넘어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관한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설계 공모된 대규모 신도시의 공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오픈스페이스'나 '한강 르네상스', 앞으로 시행될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등에 담겨져 있는 기대이자 가치이기도 하다. 가히 '조경의 시대'(배정환, 2007)라 할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조경은 서구적 생각과 이론을 수입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이규목, 1992; 박재철, 1993; 김동찬, 1993; 신상섭, 1997; 최정민, 1994; 김한배, 1997; 1999; 고주석, 1998). 한국 조경은 동시대의 가속적인 개발과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담론의 생산이나 자기 성찰로 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많은 물량을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눈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구의 이론이나 설계 경향은 좋은 선례이자 해결책이 돼 주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조경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한국 조경의 서구 종속성과 주변성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최정민, 2006). 한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은 대화이고 해석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과 문화를 재해석할 것을 요구한다(강혁, 1999).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경은 땅과 장소라는 지역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기에, 서구 학문의 수용만으로는 우리의 과제와 고민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조경진, 1999). 현대 조경을 논하면서 지역성, 한국성 또는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인 것이다. 때문에 한국 조경은 그 성과를 논하는 단계마다 우리의 철학과 정체성에 바탕을 둔 조경(이규목, 1992; 임승빈, 2002)이 강조되어왔다. 또 '한국적 도시공원 개발 모색'(환경과조경, 1999)이나 '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환경과조경, 1997a)같은 문제도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고, '한국조경, 과연 철학이 깃들여 있는가?'(환경과조경, 1997b) 같은 반성적 질문을 통해 한국조경의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용산기지 공원화'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한국적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2005).

조경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한국성'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통성'이라는 용어 대신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초반까지는, 60~70년대의 민족주체성 정립이라는 정치적 관점과 정권 수호적인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성이 논의되었다. 90년대 들어서는 '한국성' 또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혼용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자메이카 태생의 영국 문화이론가인 스투어트 홀(Stuart Hall, 1994)이 카리브 연안 국가들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 캐리비안성(Caribbean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한국성 또는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독특한 한국적 모습이다. 서구와 일체에 의한 일방적이고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심각한 단절을 경험한 우리에게 보다 절실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성 논의는 원론적인 당위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거쳐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귀하여 전통의 현대적 접목이라는 공식으로 귀결되곤 했다. 한국성이란 것이 전통으로 귀결되는 개념인지, 동시대의 설계 주제인지, 전략적 개념인지도 분명치 않은 가운데, 형태적 재현이라는 물상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된다(박길룡, 1997). 한국성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나 개념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보다 진전된 한국성 논의를 위해서는 논의들을 일반화하고 평균화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정우, 2004)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성(Koreaness, Koreanness, Koreanity, Identity of Korean, Character of Korea)이라는 용어의 용법이 논자마다 다르고, 개념은 논자 수만큼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한국성에 대한 개념적 합의나 정의가 가능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성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개념적 합의나 정의는 불가능한가?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적 지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전개되어온 한국성 담론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성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개념적 정의를 모색하여 한국현대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한국현대조경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관심과 목적은 그 자체로 담론적 성격을 가진다.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 논자들은 그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담론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이정우, 2004). 현대에서 '담론(discourse)'이란 일상적 담화, 문학적, 종교적, 정치적 견해들, 지식으로서 체계를 갖춘 언설들을 포괄하는 말(Foucault, M., 1971)로 정의된다. 담론은 매체를 통해 형성되고, 지식의 생산에 관련되며, 사회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발전을

견인한다(McLuhan, M., 1964). 모든 사회적 실천들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담론은 디자인 사고의 근간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형성된 한국성 담론들을 수집하고 정리, 분류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한국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적 지형을 모색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학회지, 전문서적, 전문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발표된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 논의, 논설, 논문 가운데 '한국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담론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논의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쟁점과 이견,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담론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국성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개념적 정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추적하고 검토하여 기술하는 간학제적(interdisciplinary)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견해와 입장들을 인정하면서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게 돕는 메타담론(meta-discourse)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II. 각 분야의 한국성 담론 고찰

1. 조경·건축 분야에서의 한국성 논의

조경 분야는 전통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한국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한국적 도시공원 개발 모색'이나 '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 '한국조경, 과연 철학이 깃들어 있는가?' 같은 한국성과 유사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형태적 표현이 용이하고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축 분야는 한국성을 직접적인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다. 건축 분야의 대표적 매체인 '공간'에서는 "한국성의 재발견"이라는 기획을 통해 "한국성의 본질과 원형"(공간, 1987a)이라는 주제와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공간, 1987b)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건축과 환경'(1987)에서도 "한국성의 재규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성 담론을 전개하였다. 이후, 한국성 담론은 간헐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다가 약 10년 후 본격적으로 재론되었다. 플러스(1997)는 "이 시대 왜 다시 한국성인가"라는 특집을 통해 한국성을 재론하였고, 온라인 잡지(webzine)인 아크포럼(1998)에서는 "韓國性: 굴레인가, 축복인가?"라는 주제의 좌담을 개최하였다.

80년대 조경·건축 분야의 한국성 담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에 내재하는 정신적인 요소나 형태, 의장 요소에서 설계언어와 공간계획원리를 발견하여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논의들이다. 즉,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권태문, 1987), 본질 또는 원형(한재수, 1987), 공간 의식이나 색채에 대한 인식(이광로, 1987; 황일인, 1987; 조성

룡, 1987a), 독특한 선(오광수, 1987), 심미감(민현식, 1987a) 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견해들이다. 이 같은 논의들은 '형태·의장적' 표현에 주목한 견해와 공간구성원리 측면에 중점을 둔 견해, 내면적 구조나 정신을 강조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형태·의장적' 표현에 주목한 견해는, 한국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변치 않는 고유성이 있고, 이들에게서 형태요소를 추출하여 형태화(임창복, 1987)하거나, 비례, 휴먼스케일, 문양, 색채, 의장 요소(김정신, 1987; 민현식, 1987a) 등을 양식적 측면의 설계어휘로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공간구성원리' 측면에 중점을 둔 견해들은, 형태적인 표현보다는 공간과 공간의 구성원리(오기수, 1987; 김정철, 1987; 김기석, 1987; 최광영, 1987; 조성룡, 1987a; 윤승중, 1987)에서 계획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한국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는 관점이다. '내면적 구조나 정신'을 강조하는 견해들은, 형태나 공간적 표현의 근간이 되는 어떤 본질적인 내면적 구조나 정신 또는 정서(이범재, 1987; 김경수, 1987; 이규목, 1987; 이선희, 1987)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경 분야에서도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요소에서 설계언어와 공간계획원리를 발견하여 표현하는 것이 '한국적 공원'이라는 견해들이 있다. 즉, "전통적인 조형양식과 지역 풍토성, 재료의 토착성, 전통 놀이 등을 한국적인 공원의 조건"(조세환, 1993)으로 보거나, "우리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문석기, 1993) 또는 "마을원림이나 전통 생활 환경터를 한국적인 공원의 원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잘 살리는 것"(박재철, 1993) 같은 견해들이다.

하지만, "형태적 표현이나 재현은 무의미하고 과거의 내면적인 것도 오늘의 낱말로 말할 수 있을 때"(김희춘, 1987) 비로소 한국성이 표현된다고 본다. 민현식(1987b)은 "한국성은 역사의식을 근거로 한 현재의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역사가 사실로서가 아닌 현재와의 대화로서만이 의미가 있듯이 전통도 현재와의 창조적 부딪침과 변화 속에서 생명을 가진다"(김한배, 1997)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적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문화에 맞고 전통성이 유지되는 것"(이준복, 1993)으로 본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한국성을 변치 않는 고유한 것이라는 무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즉, 현재라는 시점에서 전통의 연장선상 또는 전통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한국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당연히 우리의 전통에서 찾아야하고, 전통성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구영일, 2004)는 주장도 제시된다.

반면에 김성우(1989)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사유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고, 한국성은 과거의 가치관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이어져야할 미래의 창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조성룡(1987b)은 "한국성은 문

화의 현재 내지는 미래"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강혁(1997)은 한국성이란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과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성은 전통과는 구분되는 동시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다.

한국성은 '전통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담론이 과거로부터 현재라는 시점이라면, '전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담론들은 현재로부터 미래라는 시점에서 한국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일견 대립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성은 '현재', '현실', '미래', '지금 여기' 같은 동시대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김봉렬, 1993; 김한배, 1997; 이정근, 1997; 박인배, 1997; 강혁, 1997; 전봉희, 1998; 김영준, 1998; 이종호, 2005).

동시대성으로서의 한국성의 탐구는 과거와 같이 전통에서 어떤 원형을 발견하기 보다는 "근대사의 역사적 집적물들"(임창복, 1997)이나 "근대적 정신과 과정"(우경국, 1997; 김봉렬, 1997; 강혁, 1999)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성은 외래문화와의 접촉과 융합과정 속에서 수용된 내용을 오늘의 어휘로 표현된 것"(이상해, 1988)으로 "현실, 주어진 여건, 국제적 상황 같은 리얼리티를 전제"(김봉렬, 1998; 전봉희, 1998)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세계화에 걸맞은 보편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성에 관한 논의는 정체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즉, "한국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행위"(이정근, 1997; 이강현, 1997)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따지는 일"(강혁, 1997; 이강현, 1997; 임창복, 1997)로 규정한다.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성은 근대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자아, 주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 사유이기 때문이다"(강혁, 1997). 한국성을 찾는 방법은 자연과의 조화나 선 등 어떤 원형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사라는 보편적인 과정 속에서 '근대성'과 '식민성' 규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인배, 1997; 강혁, 1999; 이규목, 2002). 따라서 80년대의 한국성 담론이 견지했던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태도의 배격"(한재수, 1987) 같은 태도보다는 "한국성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외래적인 것과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을 거쳐 거듭나는 것"(이규목, 1998)으로 서양적인 면과의 조화를 모색(김성우, 1987)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한국성은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 확인 작업이나 세계에 대한 문제"(김진애, 1998)에서 찾아야 한다는 외래문화의 수용적 태도이다. 결국, 한국성이라는 것은 세계적 또는 아시아적 보편성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김성우, 1989; 이종호, 2005)하는 것이 과제라고 인식한다.

조경 분야에서도 한국적 도시공원의 모색은 "한국의 생태문화,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지역성'을 가진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고주석, 1998)으로 이해하

며, "현재의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숨어있는 '창조적 연속성' 속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으로 '쌈지마당'을 한국적 도시공원의 사례로 제시한다(김한배, 1993).

이와 같은 논의들은 한국성을 "사람들의 생각들이 집적된 것"(김봉렬, 1993) 또는 "한 시대 한 집단이 발휘하는 창조적 역량의 문제"(강혁, 1997)라는 집합적 성격으로 이해한다. 이는 작가의 표현의지(장순용, 1987; 김봉렬, 1987)나 작가의 창작과정을 통해서(이규목, 1987), 또는 개별 작가의 이론들이 집적되고 갈등하고 비평하는 것을 통해서 창출(김봉렬, 1997)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성은 단체성이나 대표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작가 개인의 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김인철, 1998)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성은 개별성이라는 관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한국성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존재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담론들이었다면 한국성을 부정하는 담론도 공존한다. 한국성은 "현대에 인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송민구, 1987)이라거나, "한국건축의 고유성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동아시아 건축의 보편적 성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김성우, 1989) 같은 비교적 온건한 견해들이 있는 반면 "한국적인 건축이 현실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지도 않으며 국가성이나 민족성은 유일의 선이라고 보는 애국과 동의시하는 관료적 사고가 불순하고, 국제사회 생활의식이나 양식은 아마도 한국적이라는 것은 거부할 것"(최창규, 1987)이라거나,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공일근, 1987) 또는 "서구화되고 세계화하고 있는 때에 한국성이 따로 존재할 의미가 없다"(김우욱, 1987) 같은 강한 부정도 있다.

이상과 같이 조경·건축 분야에서의 80년대의 담론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에 내재하는 정신적인 요소나 양식적 요소, 공간 구성 등에서 설계언어와 계획원리를 발견하여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논의들이다. 이 같은 담론들은, 먼저 형태와 외장적 표현에 주목한 담론들이 우세하게 전개되다가 공간과 공간구성원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들로 이행되고, 이는 다시 내적 구조나 정신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80년대의 담론이 한국적인 고유성을 전제로 한국성 표현이라는 측면에 천착했다면, 한국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동시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90년대 담론들의 함의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의 한국성 담론이 당시 정권의 선전과 홍보와 관련된 이데올로기(김종균, 2007)라는 성격이 짙었다면, 90년대 한국성의 재론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요구되었던 내부적 성찰과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세계가 동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고유성과 주제성을 강조하던 관점에서 근대성과 서구문화와의 접변과 수용을 인

정하고 문화적 보편성을 중시하며, 문화정체성에 관한 담론으로 이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성은 대체로 집합적 성격이라는 암묵적 동의하에 논의 되어 왔지만, 소수이기는 하나 한국성은 작가나 설계자의 개별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담론들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비해 한국성의 존재나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대립적 담론도 공존한다. 한국성 논의는 하나의 관점이 다른 관점에 의해 반론되면서 대립적 관계를 구축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행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미술 분야에서의 한국성 논의

조경·건축 분야와 마찬가지로 작가와 작품이 담론의 주요한 두 축을 형성하는 미술 분야에서도 한국성 표현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공간'에서는 '한국성 탐색의 현재지사'(공간, 1987b)와 '한국성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좌담회(공간, 1988)를 통해 한국성을 논의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윤범모 편, 1995)과 '한국미술의 정체성'(조광석 등 편, 1999) 등이 재론되었다.

미술 분야에서도 조경·건축 분야와 유사하게 공간성과 양식성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최병식(1987)은 회화적 공간구조와 감성, 자연주의적 곡선 등을 공간성으로, 민예적 미, 목재, 흙 같은 재료들과 색채 등을 양식성으로 분류하여 한국성을 규정한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으로 제한하여 한국성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김병중, 1988),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것으로 그대로 표현 양식으로 변안될 수 없다"(임두빈, 1987)는 비판적 반론이 제기된다.

"한국성을 과거와 미래의 통시성을 가지면서 동시대의 공간성을 가진 개념"(이종상, 1988)으로, "한국성이란 과거의 특질들이 반드시 오늘의 시간과 공간이란 터널을 통과해야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김복영, 1988)으로 정의한다. "한국성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당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 의식에 알맞은 것으로 해석하고 형상화해야 한다"(김희대, 1995)고 강조한다. 시·공간적 측면에서 전통성이 내포된 동시대성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는 담론들이다.

반면에 "한국성이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현대의 재조명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할 입장으로 삶의 유형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다"(장석원, 1990)라고 전통성과 한국성을 구분한다. 김정희(1999) 역시 "한국의 과거인 전통에만 시계를 좁힘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밖으로 향한 눈과 상상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우리의 지역적 특수성, 민족적 특수성만을 고려한 채 '지금의 시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성, 고려성이 아닌 한국성이라고 하니 만큼, 해방

후 20세기의 경향을 말하는 동시대성"(최석태, 1995)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성을 동시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세계적으로 동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성은 감상적 복고주의나 수구가 아닌, 우리를 주체로 타자를 인식하려는 비전"(김병중, 1988) 또는 "한국성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개방적 주체성"(이종상, 1988), "한국성은 서로를 수평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공간성, 지역성 개념의 정체성"(김정희, 1999)으로 "한국의 아이덴티티"(최석태, 1995)라고 정의한다. 정체성은 타인들의 존재를 나와 다른 그 자체로 인정하는 태도로 "한국성 탐색은 타자와의 차이를 규명하는 일"(김영호, 1999)이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택을 통해서 구축되는 것"(조광석, 1999)으로 이해한다. '선택'은 결국 작가의 의식과 관계되고, 한국성은 한국인이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창출해 낸 것으로 작가의 의식, 미적 태도, 시대정신으로 창작행위를 통해서 획득된다고 보는 것이다(윤범모,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 분야의 대표적인 한국적 작가로 '박수근'과 '이쾌대'를 들고 있다. '박수근'은 봉건적인 것을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감각으로 소화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작가이고, '이쾌대'는 우리의 것과 서구의 자양분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예술 세계의 폭을 넓힌 작가(윤범모, 1995)라는 것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공간성이나 양식성 같은 미학적 측면에서 한국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보다는 동시대라는 시·공간적 측면에서 한국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설득력있게 전개되고, 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국성은 정체성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시대성으로서의 한국성은 전통, 본질, 고유성 같이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선택'에 의해 구축된다고 본다. '다른 것과의 다름'으로서의 한국성, '선택되고 구축되는 것'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세계화 시대의 문화 차별화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화·예술·디자인 분야에서의 한국성 논의

문화, 영화, 게임, 패션, 의상디자인, 조형예술, 시각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 문화, 한국성 또는 한국문화정체성, 한국적 디자인 등으로 표현과 개념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조형예술 분야의 김철순(1997)은 "한국적인 것은 외양적인 형식의 특수성이 아니라 내재적이며 정신적인 의미로 미의식에서 비롯되는 조형의 특성인 멋, 간결성, 해학성으로 불릴 수 있는 고유한 민족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미학적 측면에서 한국성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역시 이러한 견해에는 반론이

따른다. “고유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보편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성의 추구는 현재적인 가치와 미래상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김경재, 1999)거나, “한국성 표현은 어떤 조형적 양식이 재현,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문화적 기술적 상황을 받아들여 현실에 불어넣는 것”(구성희, 1988)이라는 견해와 같이 고유성보다는 동시대라는 관점에서의 보편성으로 한국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디자인 분야에서 최상현(2001)은 “한국성이란 현대적인 의미를 포함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나 색채가 담겨 있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한국성이란 필연적으로 전통성일 필요는 없다”고 정의한다. 한국성을 전통성이 내포된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동시에 전통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성이 과거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정하고 통시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라면, 한국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통시적, 공시적 측면을 모두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김경재, 1999; 권영걸, 2001). 이는 전통성, 한국성, 정체성이 궁극적으로 어느 집단에 공유되는 문화이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와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변화하는 것(김민수, 2001)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의상디자인 분야에서 김성복(2001)은 “시원(originality)에 대한 집착은 현재성이 결여된 과거 지향적 모방에 지나지 않으므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문양이나 수공예를 직설적으로 빌려 오는 대신에 현재 한국 문화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의식의 원형에 대한 실질적인 추적과 성찰을 통해 한국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통을 형상화한 ‘청자드레스’나 ‘칠감산드레스’ 같은 의상은 서양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성’도 ‘대중성’도 없다는 것이다. 역시 “앙드레 김은 자기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서양의 인지체계에 맞춰진 자가당착적 한국미를 재생산하여 우리의 것을 단순화, 박제화 함으로써 정체성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일본패션’이라는 범주로 통칭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표상에 안주하기보다는 일본에 대한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해체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독창성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답적인 한국적 특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재래시장 같은 한국의 대중적 장소 탐색을 통해 정체성의 단서를 찾고, 아직 규정되지 않은 한국 특성을 담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짚시스포츠’를 소개하고 있다.

게임 분야에서 김성완(2001)은 “한국적 게임은 현재 진행형인 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소재나 박물관에서 가져온 소재를 가지고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스톱’은 일본에서 전래되었지만 한국인의 정서와 기질에 상

응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놀이이며, 한국을 ‘IT강국’으로 만든 ‘빨리빨리’라는 성향에 부합하는 ‘스타크래프트’의 스피디한 디자인이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되었고 ‘리니지’는 힘과 계급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기질을 반영하는 한국적 게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영화 분야에서 유지나(2001)는 통상 한국적인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서편제’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같은 영화를 서구인의 구미에 맞추어 동양을 이색적인 곳으로 보여 주기는 했지만 현재성이나 대중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성을 담은 영화라기보다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인 영화라는 것이다. 반면에 ‘쉬리’는 유사 할리우드 영화로 시작했지만 한국적 멜로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중세적인 모순을 개혁하려는 정치지도자로서 사도세자를 그려낸 ‘영원한 제국’은 더 이상 상투화된 전통이 아닌, 호흡하는 역사를 되살려 내려는 움직임 보인 한국적 영화로 평가한다.

공연 분야에서 ‘난타’는 한국의 고유리듬에 현대적 극 요소가 결합되어 그 역동성과 움직임이 현대 서구인들에게도 어필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최근의 ‘한류(a korean wave)’는 자국 문화와 서구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가 혼성의 형태로 각 지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뒤섞이면서 새로운 현대성을 창출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이기형, 2005).

문화·예술·디자인 분야에서도 한국성을 고유한 조형적 특성이나 간결성, 해학성 같은 미학적 고유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성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문화 정체성’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화 정체성은 현실과 문화 혼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운데서 차이(difference)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미 우리사회가 상당히 복합적인 문화접변이 이루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한국성을 창출해내려는 포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성은 과거나 고유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문화와 일상 속에서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하기’나 전통적인 관점의 ‘해체’ 같은 대안적 전략(리즈스코프, 2001)을 통해 현대성을 창출하고 현재성과 대중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4. 인문 분야에서의 한국성 논의

인문 분야에서의 한국성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분야들 보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철학 분야에서 소흥렬(1987)은 “한국성 문제는 우리 시대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라고 규정한다. 그는 “한국성의 모색은 전통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한국성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전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통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면서도 전통과의 거리두기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홍가이(1987)는 한국성과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 “무조건 배척도 아니고, 무조건 답습도 아닌 전통에 대한 역사적 해체(historical deconstruc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한국성은 불변의 요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새롭게 변화, 창조되는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이다. 탁석산(2000; 2001) 역시 “전통의 재현은 현재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 세 가지를 한국성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시원(始原)은 의미가 없으며 과거의 것도 재현되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것”이라고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학자인 조한혜정(1994)과 김광억(1997)은 “한국성에 관한 논의는 결국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담론”이라는 정의를 공유한다. 김광억은 “과거집착주의가 아니라 시대를 관류하는 역사의식,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 이념의 체계를 어떤 양식으로 표현하고, 그 실천의 환경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하는 것이 한국성 논의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조한혜정은 TV드라마 가운데 ‘다모’, ‘대장금’ 등을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결합한 한국적 드라마라고 소개하면서, 복합적인 문화접변이 이루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양한 전통을 창출해 내려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학자인 최봉영(1997)은 “한국문화는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요구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해왔으므로 고유한 특성을 갖는 고정 불변의 한국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자폐증”이라고 지적한다. 미학자인 김문환(1997) 역시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고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동서양의 다른 문화의 상관관계 속에서 재발견하며 외부세계와의 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세계문화의 다양성에 공헌할 수 있는 있는 보편성으로서의 한국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성을 찾는 방법은 다른 문화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차이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인문 분야는, 한국성을 불변의 요소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변화, 창조되는, 고립되지 않는 문화로서 이해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시대마다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적 문화내용이 존재해왔고, 이들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특성 있는 한국문화가 있다(최봉영, 1997)는 문화적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진중권(2002)은 “한국인의 정체성은 폐거리의 정체성으로 집단적 정체성이 개인을 강제하므로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III. 한국성 담론의 유형과 이해

1. 한국성 담론의 유형별 분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성 개념은 분야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단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야가 달라도 거의 일치하는 견해도 있고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만큼 유사한 견해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들을 인정하면서 공통적 함의와 상반된 견해들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형태나 공간의식, 색채나 선, 심미감, 사상 같은 본질 또는 원형이 존재하고, 이 같은 고유성에서 형태·의장적 모티브를 찾거나 공간계획원리를 발견하여 한국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견해들을 미학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는 내재적 본질이나 원형 같은 변치 않는 고유한 요소에서 한국성을 발견하기 보다는, 한국성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현재라는 시점의 현실이라는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담론들을 시·공간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는 한국성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문화 또는 문화정체성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담론들은 문화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담론들이라면, 한국성의 존재나 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한국성 담론의 유형별 해석

1) 미학적 유형

미학적 유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최종적인 형태의 구현에 관심이 많은 건축 분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담론 유형이다. 물론 조경이나 미술, 예술 분야에서도 공간구조와 감성, 자연주의적 곡선과 민예적 미, 재료와 색채, 또는 간결성, 해학적 같은 고유성류의 미학적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건축 분야가 수적으로 월등하다(표 1 참조). 미학적 유형은 논자의 관심사에 따라 양식성(형태·의장), 공간성, 내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식성으로서의 한국성은 형태, 색채, 재료, 질감, 문양, 디테일 같은 2차원 또는 3차원 요소를 대상으로 형태적·의장적 표현에 관심을 둔 담론들이다. 형태보다는 전통공간의 구성, 공간의 성격, 공간의 이미지 등에서 계획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견해들은 공간성으로서 한국성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내재성으로서 한국성을 이해하는 관점은 양식적, 공간적 표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나 철학, 종교, 정서 등의 내면적 사고에 관심을 가진 견해들이다(표 1 참조).

미학적 유형으로 분류한 담론들은 내용적으로 한국적 고유성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다. 양식적, 공간적, 사상적 측면 등 관심사는 다르지만 재현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원형의

표 1. 한국성 담론의 유형별 분류

유형	개념적 이해	건축·조경 분야	미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	인문 분야
미학적 유형	고유성으로서의 한국성 (본질, 원형, 미의식, 자연환경, 공간의식, 색채, 선 등)	권태문(1987), 한재수(1987), 이광로(1987), 오광수(1987), 민현식(1987), 황일인(1987)	최병식(1987)	김철순(1997), 최상현(2001)	소홍렬(1987)
	양식성으로서의 한국성 (형태, 의장, 재현, 변형 등)	임창복(1987), 김정신(1987), 오광수(1987), 민현식(1987)	임두빈(1987)		
	공간성으로서의 한국성	황일인(1987), 김정철(1987), 오기수(1987), 김기석(1987), 최관영(1987), 조성룡(1987), 윤승중(1987), 김경수(1987)			
	내재성으로서의 한국성 (사상적, 내면적 구조)	이규목(1987), 이선희(1987)			
시·공간적 유형	전통성으로서의 한국성 (전통 내포, 통시성)	김희춘(1987), 류춘수(1987), 민현식(1987), 안영배(1988), 구영일(2004)	이종상(1988), 김희대(1995)	김경재(1999), 권영걸(2001), 최상현(2001)	조한혜정(1994), 소홍렬(1987)
	동시대성으로서의 한국성 (전통과 구분, 현실성, 현재성, 변화성, 공시성)	김성우(1987), 조성룡(1987), 정기용(1987), 이상해(1988), 이정근(1997), 김봉렬(1997), 김영준(1998), 박인배(1997), 우경국(1997), 강 혁(1997a), 이종호(2005)	이종상(1988), 김복영(1988), 심광현(1988), 장석원(1990), 최석태(1995), 김정희(1999), 이용우(1999)	구성희(1988), 김성복(2001), 박신의(2001), 권영걸(2001), 최상현(2001), 김성완(2001), 김민수(2001)	소홍렬(1987), 홍가이(1987), 김광익(1997), 최봉영(1997), 탁석산(2000; 2001)
문화적 유형	(문화)정체성	이법재(1987), 동정근(1987), 이정근(1997), 강 혁(1997), 이강현(1997), 박인배(1997), 이종호(1997), 김봉렬(1998), 김우욱(1997), 임창복(1997), 김준성(1998), 이상현(2001)	최석태(1995), 조광석(1999), 김정희(1999)		조한혜정(1994), 김광익(1997)
	·보편성(개방적 주체성) ·서구 포용 문화 융합	이규목(2002), 김성우(1987), 김성우(1989), 이종호(1997), 이종호(2005), 전봉희(1998), 이상해(1988)	이종상(1988)	조한혜정(1994), 김경재(1999), 김민수(2001)	김문환(1997), 최봉영(1997), 소홍렬(1987)
	타자와의 차이(차별)성	김진애(1998)	김영호(1999), 김병종(1988)	박신의(2001)	김원룡(1987)
	일상성, 대중성			김성완(2001), 김성복(2001), 유지나(2001)	탁석산(2000)
	주체성	한재수(1987), 이상해(1988)			탁석산(2000)
	근대성과 식민성 규명	우경국(1997), 임창복(1997), 강 혁(1997a), 강 혁(1997b), 김봉렬(1997), 이상해(1988), 박인배(1997)	장석원(1990), 조광석(1999)	권영걸(2001)	소홍렬(1987)
	전통의 역사적 해체			리즈스코프(2001)	홍가이(1987)
	작가의식, 미적태도, 창작행위	장순용(1987), 김봉렬(1993), 김봉렬(1997), 강 혁(1997), 김인철(1998)	윤범모(1995), 김복영(1988)		김원룡(1987), 김태원(1987)
부정	송민구(1987), 공일곤(1987), 최창규(1987), 김우욱(1987), 김성우(1989)		유지나(2001)	김동현(1987), 진중권(2002)	

재현 또는 변형, 재해석 같은 김홍식(1987)의 방법론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러나 완자무늬나 추녀의 곡선이 당대의 한국성을 찾으려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견해와 같이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한국성은 지금의 현실과 현재부터 이어져야 할 미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

2) 시·공간적 유형

한국성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현재라는 시점의 현실이라는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전통에서 한국성으로 전환된 것 속에는 '지금 여기', '오늘', '현재', '현실' 같은 시·공간적 개념이 내포되어 강조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들이다. 철학자 탁석산(2000)이 강조하는 한국성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현재성'과 '대중성'도 이러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다시 '전통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는 관점과 '전통과의 거리두기'를 견지하는 견해, 과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전통과의 구분'되는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통성을 내포한 동시대성'이라는 관점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동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맞게 해석하고 형상화하여 오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전통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견해는, 한국성의 모색은 전통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한국성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전통에 머물러 있거나, 필연적으로 전통성일 필요는 없다(소홍렬, 1987; 최상현, 2001)는 것이다. 한국성은 전통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과거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보지는 않는 관점이다. 반면에 전통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한국성은, 현대 사회는 전통적 사유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으며 과거의 가치관으로 회귀할 수 없으므로 한국성 논의의 목적은 현재부터 이어져야 할 미래의 문화(김성우, 1987; 조성룡, 1987)에 있다는 담론들이다. 한국성은 현대 한국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동정근, 1987)으로 "한국성은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과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강혁, 1997)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성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의 재조명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장석원, 1990)으로 이해한다.

위와 같이 일견 대조적인 견해 속에도 한국성이라는 개념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한국성은 변화해 나가는 그 사회 또는 역사의 방향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성은 "해방 후의 경향을 말하는 동시대성"(최석태, 1995)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성의 탐구는 전통에서 어떤 원형을 발견하기 보다는 근대사나 근대적 정신과 과정(우정국, 1997; 김봉렬, 1997; 강혁, 1997)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성은 외래문화와의 접촉과 융합과정 속에서 수용된 내용을 오늘의 어휘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3) 문화적 유형

한국성을 동시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세계적으로 동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성은 동시대의 현실, 주어진 여건, 국제적 상황 같은 리얼리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세계화에 맞는 보편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성은 문화 정체성을 따지는 일(조한혜정, 1994; 최석태, 1995; 이정근, 1997; 강혁, 1997; 이강현, 1997; 임창복, 1997; 이강현, 1997; 김광역, 1997)로 정의한다. 프랑스인 한국학자 불레스테스(Boulesteix, F., 2001) 역시 "한국성(Korea-

nity)은 타자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정의한다. 90년대 이후로 한국성은 (문화)정체성 개념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문화정체성으로서의 한국성은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보편성'을 강조하는 견해, '개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다른 문화와 차별되는 한국적인 고유한 성격, 특수성, 주체성을 증시하는 태도이다. 문화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란 다른 문화와의 상관관계나 근대사의 보편적 과정 속에서 구축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현재성'과 '대중성', '타자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들이 문화정체성을 민족, 국가, 사회 집단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집합적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비해, 한국성은 개인의 선택과 사고,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관점을 개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질성으로서의 한국성

동질성으로서의 한국성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관점이다. 즉,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 생활과 기후, 기술, 공간의식과 색채, 음양오행, 풍수지리, 풍토성, 마을 숲 같은 연속성 있는 고유의 가치를 다른 문화와 차별되는 한국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주체성을 강조한다. 60~70년대의 민족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정책이나 외래문화와 반대되는 논리로서 양식사적 연구와 형태의 직설적, 변형적 재현, 또는 공간적으로 구현에 관심을 둔 담론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주체의 결여라는 콤플렉스(김광현, 1988; 김진애, 1998)가 기저를 이루고 있는 방어적 기제로 이해한다.

이렇게 한국성이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로서 비판의 잣대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안은 전통회귀와 전통소재주의, 한국적 미의식이라는 지역주의적 사고로 협소하게 정의되고, 우리의 지역적 특수성, 민족적 특수성만을 주목하여 한국의 과거인 전통에만 시계를 좁힘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밖으로 향한 눈과 상상력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비판받는다(이용우, 1999). 따라서 한국성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개방적 주체성 또는 우리를 주체로 타자를 인식하려는 비전이라고 정의한다. 문화적 동질성 위에 보편성이 더해진 수정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보편성으로서의 한국성

시·공간적 유형에서 전통성과 구분되는 동시대성으로서 한국성으로 분류한 담론들은, 문화적으로는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성을 이해한다. 한국문화는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요구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갖는 고정 불변의 한국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적 자폐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성 논의는 과거집착주의가 아니라 시대를 관류하는 이념과 그 실천의 환경(김광역, 1997)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하고, 동서양의 다른 문화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재발견하여 세계문화의 다양성에 공헌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김문환, 1997)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한국적 고유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보편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성의 추구는 현재적인 가치와 미래상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공식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쌈지공원'을 한국적 발상에 의한 한국적 도시공원의 사례로 소개한 경우(김한배, 1993)나 '청자드레스'나 '칠갑산드레스', '앙드레 김'의 의상이 서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오리엔탈화'의 자가당착적 한국미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대중적 장소 탐색을 통해 정체성의 단서를 찾은 사례로 '쌈지 스포츠'를 소개한 경우(김성복, 2001), '고스톱',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한국적 게임으로 평가하는 견해(김성완, 2001), '쉬리', '영원한 제국' 같은 영화를 한국적 영화로 평가하는 견해(유지나, 2001), '난타'나 '한류' 문화 등은 모두 동시대의 문화적 보편성 속에서 대중성을 획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한국적 미술 작가로 소개되는 박수근은 우리의 것과 서구 문화, 현대적인 도시감각을 소화하여 보편성을 획득한 결과로 이해된다(윤범모, 1995). 이와 같은 담론들은 고유성 또는 시원에 집착하거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화가 혼성되고 근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현대성을 창출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한국성을 찾는 방법은 자연과의 조화나 선 등 어떤 원형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사라는 보편적인 과정 속에서 '근대성'과 '식민성' 규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자아, 주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성은 근대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때문에 80년대의 한국성 담론이 견지했던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수용 배경 같은 태도보다는 서양적인 면과의 조화를 모색하거나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 확인 작업, 국제적인 운동, 실험정신 등에서 한국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성 논의는 이미 우리사회가 상당히 복합적인 문화집변이 이루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 가운데서 차이(difference)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성은 한국 사람이 하는 일"(김우욱, 1997; 김준성, 1998)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정체성 담론에서 진보하여 한국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수용하여 한국적 현대 문화를 새로 만든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개별성으로서의 한국성

동질성이나 보편성으로서의 한국성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집

적된 것 또는 한 시대 한 집단이 발휘하는 창조적 역량의 문제로 정의된다. 한국성은 궁극적으로 어느 집단에 공유되는 문화(김민수, 2001)라는 집단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같은 집단의 문화적 특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와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변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성을 보편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한국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시대마다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적 문화내용이 존재해왔고, 이들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특성 있는 한국문화가 있다고 보는(최봉영, 1997) 것이다. 이는 작가의 표현의지나 창작과정을 통해서, 또는 개별 작가의 이론들이 집적되고 갈등하고 비평하는 것을 통해 창출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한국성은 작가 개인의 문제이고 작가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 집합적으로 모아서 단체성이나 대표성으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성을 찾았다고 해서 모두 그것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김인철, 1998)거나, 집단성은 개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진중권, 2002)들은 한국성을 전적으로 개별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성을 중시하는 견해들은, 작가(설계가)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한국성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성을 전적으로 작가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의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기존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작가는 부정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새로움을 배제하지 않는 더 폭넓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상상을 통해 기존의 관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변형시키고 새로운 관념에 맞추어 작품을 창조하여 미래의 공동체를 그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현재, 2005).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작품은 결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새롭게 변형된 가치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성이 집단적 성격을 갖더라도 개별 작가의 창의성을 획일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에게 있어 창작의 '준거' 또는 '원천'이 되고, 개인의 창작행위는 한국성을 창출하거나 한국성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성 또는 정체성의 부정

상술한 바와 같은 유형의 한국성 담론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국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담론들이었다면 한국성을 부정하는 담론들도 공존한다(공일곤, 1987; 김우욱, 1987; 최창규, 1987). 집단적 성격으로서 한국성을 전제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한국성 또는 정체성은 이래야 한다는 대전제적인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고, 집단

적 개념을 개별자에게 분할하면 그 공통 속성이 없다는 분할의 오류가 있으며, 개별자를 모아 전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도 합성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유지나, 2001). 집단을 근거로 한 정체성 논의는 개성을 갖춘 개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와 같은 부정론들에는, 집단적 성격의 고유성으로서 한국성이란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80년대 중반까지 정권 유지와 홍보 수단으로 대두되었던 한국성 담론에 대한 거부반응, 개인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집단성에 대한 거부감 등이 논의의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자들이 민족, 국가중심의 정체성을 낡은 이데올로기로 배척(정영훈, 2001)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성은 고유성으로만 규정되지는 않으며, 90년대 이후의 한국성 담론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는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한국성 논의의 시작은 문화적 주체의 결여라는 콤플렉스가 기저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한국성 논의는 기존의 전통이나 주체성 개념이 의존해왔던 이데올로기나 국경 같은 영역이 해체되면서 내부적 성찰과정(Kevin, R., 1997)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성이란 것은 없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그 자체가 자기 성찰적 과정이며, 없다는 것 역시 한국성이 규정되는 방식에 따른 것(김성우, 1987)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각 분야에서 논의된 한국성 담론들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인정하면서 미학적 유형과 시·공간적 유형, 문화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미학적 유형은 '형태적·의상적 표현에 관심을 둔 양식성으로서의 한국성', '전통 공간의 구성과 특성 등에서 계획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공간성으로서의 한국성', 그리고 '이들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나 내면적 사고에 관심을 가진 내재성으로서의 한국성'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개념들이 변치 않는 '고유성으로서의 한국성'을 전제로 한 관점이라면, 시·공간적 유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특성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며, 현재라는 시점의 현실 상황을 강조하는 '동시대성으로서의 한국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대성으로서의 한국성은 당연히 전통을 받아들이고 전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통성을 내포한 개념으로서의 한국성'과 과거와는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는 '전통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한국성'으로 구분된다. 문화적 유형은 한국성을 문화정체성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다. 이는 한국적인 고유한 성격이나 문화적 특성이 다른 문화와 차별화되는 '동질성으로서의 한국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한국 문화는 타문화와의 상관관계나 근대사의 보편적 과

정 속에서 구축된 것으로 이해하는 '보편성으로서의 한국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문화를 집단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라면, 한국성은 작가 개인의 선택과 사고, 역량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를 '개별성으로서의 한국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통성과 한국성의 관계는, 의미수용의 측면에서 전통성이 통시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한국성은 통시적, 공시적인 측면을 모두 중시하거나 공시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전통성이 근대(현대)를 불연속적 과정으로 보고 역사의 단절을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표출된다면, 한국성은 근대와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한다. 전통성이 서구와의 차별성을 전제로 우리의 특수성과 원형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비해, 한국성은 서구와의 혼성적인 현실 상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권영걸, 2001). 한국성이 과거와 관련 없는 현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는 견해는 한국성 논의가 결국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것도 재현되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것(탁석산, 2001)으로 전통은 한국성을 다양하게 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홉스봄(Hobsbawm, E., 1983)의 견해를 빌자면, 한국성은 '현대적 전통을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집단성과 개별성의 관계는, 한국성이 집단적 성격을 가지더라도 개별 작가의 창의성을 확립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에게 있어 창작의 '준거'나 '원천'이 되고, 개인의 창작행위는 한국성을 창출하거나 한국성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성은 집단성에 개별성이 더해진 문화"(이종호, 1997)이거나 집단성과 개별성은 상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성 부정론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한국성이 집단적 성격을 갖더라도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자들이 모두 한국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정론은 한국성을 너무 단선적 규정하거나 논의의 폭을 줄여놓은 결과로 생각된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성 논의는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서 재국지화(relocalization)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 과정(김성복, 2001)이며, 세계화 시대의 한국성은 수평적으로 '다름'을 구분하는 문화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다.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지구적 규모의 정보 확산은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장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은 장소자산이 되며 이들 장소를 마케팅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은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낡은 이데올로기로 배척해온 세계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한국성에 관한 논의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성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개념적 정의를 모색하여 한국현대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진전된 한국현대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해서는 용어의 애매성(ambiguity)과 모호성(vagueness)을 줄이고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용어로 동의어 정의나 어원적 정의 같은 사전적 정의(lexical definition)는 불가능하다. 논자에 따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한국성이라는 개념은 외연(extension)없는 다양한 내포(intension)이거나, 한국성이라는 외연은 서로 다른 내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외연 없는 내포는 있지만, 내포 없는 외연은 없고, 외연은 내포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내포는 외연을 결정한다.¹⁾ 논자마다 다양한 한국성 개념은, 논자들이 한국성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주관적 내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속성인 '객관적 내포'로서 한국성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지적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이들 가운데 주요 쟁점과 이견을 노출하고 공통적인 함의를 정리하여 협약적 내포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협약적 내포는 많은 논자들이 한국성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다고 동의한 속성들의 집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미학적 유형과 시·공간적 유형, 문화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는 한국성의 개념적 내포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규정에서 다른 규정으로 변화하며 이행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적인 고유한 형태, 의장요소, 공간구성, 미의식, 사상 같은 본질적 원형을 발견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관심으로부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규정되는 동시대성이란 관점으로 이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 사회가 세계적으로 동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통과 고유성보다는 근대사와 근대성, 외래문화의 접변과 수용 과정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국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문화정체성으로 정의되는 한국성은 고유성을 전제로 한 동질성(특수성)으로 이해하던 관점에서 근·현대적인 문화적 동인 모두를 단서로 포괄하며,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성을 개별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나 부정하는 견해는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한국성은 이래야 한다'고 강령적으로 정의(programmatic definition)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성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동시대의

공간적,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약정적(stipulative),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가능하다.²⁾ 이와 같은 정의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명료화한다기 보다는 언어적 혼란을 줄이고 의미를 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정의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적합인가가 중요하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약정적 정의나 여러 개의 조작적 정의도 가능하다.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성은 근대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정체성 자체가 근대적 사유로 근(현)대사라는 보편적인 과정 속에서 근대성과 식민성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성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근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구적 개념의 조경이 도입되어 독립적인 학문과 전문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압축 성장'을 이룬 것은 급속한 근대화가 준 선물이었다. 서구조경의 신기함은 권력과 자본, 지식의 우월성으로 연결되어 한국 조경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한국 조경이 서구 조경과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하지 못하고, 서구 조경의 모방과 수입에 의존하여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으로도 나타났다. 때문에 한국 조경의 근(현)대성이나 식민성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성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한국성이 외부적인 변화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 한국성 논의는 내부적인 과정 위주로 이해되고 연구된 경향이 있다. 한국 조경의 전통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고 전통 경관 및 정원 문화와 현대 조경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성이 전통의 연상선상에서 이해될 때, 우리의 내부 과정으로만 파악하여 외부적인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성이 전통과는 관계없는 개념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또는 정체성 연구는 전통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현대 조경에서 한국성을 논하는 것은 서구 조경의 종속성과 주변성을 탈피하여 스스로 중심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통의 현대화가 아니라 현대의 전통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계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국성은 현대 조경에서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유용한 설계 전략이다. 서구의 모범적인 도시개발이나 조경 사례들이 보여주는 함의는 지역과 장소의 정체성으로 귀결된다(최정민, 2006). 조경의 정체성은 문화성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은 그 문화적 자양분의 공급처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성은 설계가들의 실천적 설계 행위의 '준거'이거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 한국성 연구는 조경 분야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자 발전을 견인하는 담론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조경 설계는 서구의 담론을 우리 현실에 대입하여 서구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타자화 하여 설계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서구로부터 유

입된 조경 교육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무슨 한국성이냐는 부정적 견해가 상존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계화란 명목으로 제시된 한정된 틀 속에서 서구적 동질성을 교육 시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현대 조경을 논하는데 한국성을 고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체의 발전 논리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 자가 발전 논리가 없다면 선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구가 지나온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으며 주변은 어디에도 없다’는 다원적 세계관이 정착하고 있는 현대에서 미국이 중심이었던 현대 조경은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로 중심을 분산 이동하고 있다. 그 힘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지역의 정체성과 인문적 토양이 바탕이 된다. 한국 조경이 현대 조경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문화와 생태,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진전된 한국성 연구를 위해서는 현대에서 정체성 개념이 갖는 의미를 구분하여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앞으로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주 1. 개념의 두 가지 측면인 외연(extension)과 내포(intension) 가운데, 내포는 어떤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통의 특징 또는 성질이다. 주관적 내포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모든 속성들의 집합이다. 객관적 내포는 그 용어의 외연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공통적인 속성 전체의 집합이다. 주관적 내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단점을 가지며, 객관적 내포는 사실상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특정한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대부분이 동의한 속성들의 집합인 협약적 내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Copi, I. and Cohen, C., 2000).

주 2. 대표적인 정의 방법은 약정적 정의(stipulative definition), 사전적 정의(lexical definition), 개량적 정의(precising definition), 이론적 정의(theoretical definition), 설득적 정의(persuasive definition),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강령적 정의(programmatic definition) 등이 있다. ‘약정적 정의’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사람이 그 용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의미 자체를 명료화 한다기보다는 언어적 혼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작적 정의’는 어떤 술어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술어가 포함되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시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성향(disposition)을 나타내는 말에 적용된다. 그러나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낱말의 의미를 항상 명료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강령적 정의’란 이상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방식의 정의로 양립하지 못하는 가치관 혹은 견해에 의한 주장이나 정의를 배척해 버리는 특징을 가진다(Copi, I. and Cohen, C., 2000).

인용문헌

1. 강혁(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2. 강혁(1997) 토론,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플러스 9705.
3. 강혁(1999)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한국성담론의 비판적 분석. 플러스 9907.

4. 건축과 환경(1988) 특집: 한국성의 재규명. 건축과 환경 8806.
5. 고주석(1998) 작정기: 21C 한국적 도시공원의 추구. 환경과조경 9804. pp. 30-39.
6. 공간(1987a) 한국성의 재발견. 공간 8706.
7. 공간(1987b)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8. 공간(1988) 좌담. 한국성 개념과 방법론. 공간 8807.
9. 공일근(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0. 구성희(1988)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1. 구영일(2004) 한국현대조경작품에 나타난 한국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12. 국토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2005)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
13. 권영길(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국제출판사.
14. 권태문(1987) 현대건축과 한국 건축성. 꾸밈 8706.
15. 김경수(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6. 김경재(1999)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 3-9.
17. 김광익(1997) 한국문화는 있는 것인가?(플러스 편, “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1)”). 플러스 9701.
18. 김광현(1988)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적 표현과 그 파생개념 비판. 건축과 환경 8806.
19. 김기석(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20. 김동찬(1993) 도시공원의 새로운 시도(환경과조경 편, “한국형 도시공원 개발모색”). 환경과조경 9304.
21. 김동현(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22. 김문환(1997) 한국적인 것의 모색방안(플러스 편, “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1)”). 플러스 9701.
23. 김민수(2001) 한·일 그래픽 디자이너 계층 분석(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20-63.
24. 김병중(1988) 좌담. 한국성의 개념과 방법론. 공간 8807.
25. 김복영(1988) 좌담. 한국성의 개념과 방법론. 공간 8807.
26. 김봉렬(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27. 김봉렬(1993) 한국성을 다시 생각한다. 건축가 9312.
28. 김봉렬(1997) 실천적 이론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플러스 9705.
29. 김봉렬(1998) 韓國性: 글레인가, 축복인가?. 아크포럼 9810.
30. 김성복(2001) 오리엔탈리즘의 족쇄: 한국 패션 정체성의 탈레마(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64-90.
31. 김성완(2001) 한국적 게임을 찾아서(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156-171.
32. 김성우(1987)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공간 8706.
33. 김성우(1989) 90년대의 전통논의를 생각하며. 공간 8912.
34. 김영준(1998) 韓國性: 글레인가, 축복인가?. 아크포럼 9888.
35. 김영호(1999) 서구미술에 나타난 모방과 차용의 역사 논리.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2: 47-78.
36. 김우욱(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37. 김원룡(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38. 김인철(1998) 韓國性: 글레인가, 축복인가?. 아크포럼 9810.
39. 김정신(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40. 김정철(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41. 김정희(1999) 토속성을 통해서 표현된 “한국성”.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 2호: 177-212.
42. 김준공(2007) 독재정권기의 민족주의와 디자인에서의 ‘한국성’.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 연구 11월호.
43. 김준성(1998) 韓國性: 글레인가, 축복인가?. 아크포럼 9810.
44. 김진에(1998) 韓國性: 글레인가, 축복인가?. 아크포럼 9810.
45. 김철순(1997) 무엇이 한국적인가? 조형예술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 공간 9710.
46. 김태원(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47. 김한배(1993) 공원인가, 제3의 공간유형인가?(환경과조경 편, “한국형 도시공원 개발모색”). 환경과조경 9305.
48. 김한배(1997) 한국조경의 전통과 설계적 상상력. 환경과조경 9706. pp. 98-103.

49. 김한배(1999) 한국, 오늘의 조경정신. *환경과조경* 9901, pp. 114-117.
50. 김홍식(1987) 민족건축론. 서울: 한길사.
51. 김희대(1995) 토론,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윤범모 편,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 서울: 가나아트, pp. 89-165.
52. 김희춘(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53. 동정근(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54. 류춘수(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55. 리즈스코프(2001) 패션-국가: 일본의 세계화 경험과 홍콩의 딜레마 (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310-338.
56. 문석기(1993) 자연성이 내재된 '公苑'으로 명명하는 것은 어떨지?. *환경과조경* 9306.
57. 민현식(1987a)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58. 민현식(1987b) 한국성 표현의 실제2, 공간사육. *공간* 8711.
59. 박길룡(1997)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플러스* 9705.
60. 박신의(2001) 한국 비엔날레에 떠도는 아시아 정체성의 유행(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92-107.
61. 박인배(1997) 가장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플러스* 9701.
62. 박재철(1993) 한국적인 분위기가 있는 공원의 사례. *환경과조경* 9305, pp. 84-87.
63. 배정환(2007)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서울: 도서출판 조경.
64. 소홍렬(1987) 한국성 모색을 위한 철학적 고려. *공간* 8706.
65. 송민구(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66. 신상섭(1997) 문화인식으로 본 현대 한국조경 경향에 대한 비평. *환경과조경* 9707.
67. 심광현(1988) 좌담, 한국성의 개념과 방법론. *공간* 8807.
68. 아크포럼(1998) 韓國性: 굴레인가, 축복인가?. (<http://www.archforum.com/main/korea/cyber/Professional/proforum-9810>).
69. 안영배(1988)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건축과 환경* 8806.
70. 오광수(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71. 오기수(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72. 우경국(1997) 토론,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플러스* 9705.
73. 유지나(2001) 퀴라디스, 한국영화의 정체성(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144-154.
74. 윤범모 편(1995) 토론,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 서울: 가나아트.
75. 윤범모(1995) 한국 근대미술의 한국성을 모색하며, 가나아트(윤범모 편,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 서울: 가나아트, pp. 7-14.
76. 윤승중(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77. 이강현(1997) 토론,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플러스* 9705.
78. 이강현(1997)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토론회, 플러스* 9705.
79. 이광로(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80. 이규목(1987) 한국건축의 한국성에 대한 하나의 가정: 상보적 이원구조. *공간* 8712.
81. 이규목(1992) 한국현대조경작품의 경향과 과제(한국조경학회 편, "현대한국조경작품집"). 서울: 도서출판 조경, pp. 8-9.
82. 이규목(1998) 해방후 한국의 도시경관 변천 및 그 요인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6(2): 1-14.
83.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84. 이기형(2005) 탈지역적으로 수용되는 대중문화의 부상과 '한류현상'을 둘러싼 문화정치. *언론과 사회* 13(2): 189-213.
85. 이범재(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86. 이상해(1988) 전통과 건축문화: 그와 상관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8806.
87. 이상현(2001) 현대사회에서의 건축과 삶, 그리고 한국건축의 정체성. *계간 과학사상 여름호*.
88. 이선희(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89. 이용우(1999) 문화정체성 담론의 제 영역과 문제들.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2: 133-158.
90. 이정근(1997) 우리 것을 찾는 이유. *플러스* 9701.
91. 이정우(2004) 개념 뿌리들. 서울: 철학아카데미.
92. 이증상(1988) 좌담, 한국성의 개념과 방법론. *공간* 8807.
93. 이종호(1997) 왜 이 시대 속에서 한국성인가?. *플러스* 9705.
94. 이종호(2005) 확실히 않은 언어들 IX_한국성. *c3korea* 0509.
95. 이준복(1993) 한국형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환경과조경 편, "한국형 도시공원 개발모색"). *환경과조경* 9304.
96. 이현재(2005) "정체성(Identity)" 개념 분석: 자율적 주체를 위한 이론. *철학연구* 71집.
97. 임두빈(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98. 임승민(2002) 한국 현대 조경 30년의 반성과 미래의 전망. *환경과조경* 0203, pp. 160-162.
99. 임창복(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00. 임창복(1997)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토론회, 플러스* 9705.
101. 장석원(1990) 현대의 한국성과 예술혼에 관하여. *아트월드* 70호.
102. 장승윤(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03. 전봉희(1998) 韓國性: 굴레인가, 축복인가?. *아크포럼* 9810.
104. 정기용(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05. 정영훈(2001) 한민족공동체와 민족정체성 문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새천년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6. 조경진(1999) 학문으로서의 조경: 변천과 전망. *환경과조경* 9901, pp. 118-121.
107. 조광석(1999) 한국적 미니멀에서 나타난 한국성.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2: 159-176.
108. 조광석, 김영호, 박일호, 윤기영, 이용우 편(1999) 한국 현대미술과 정체성.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2호.
109. 조성룡(1987a)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10. 조성룡(1987b) 한국성 표현의 실제3, 극립현대미술관. *공간* 8711.
111. 조세환(1993) 한국형 도시공원이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환경과조경 편, "한국형 도시공원 개발모색"). *환경과조경* 9306.
112. 조한해정(1994)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13. 진중권(2002) 폭력과 상스러움. 서울: 푸른숲.
114. 최관영(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15. 최병식(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16. 최봉영(1997)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건축(플러스 편, "한국건축, 재구성을위한 서설(1)"). *플러스* 9701.
117. 최상현(2001) 전통성, 한국성 그리고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 *건축* 0102: 19-22.
118. 최석태(1995) 토론,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윤범모 편, "한국근대미술의 한국성"). 서울: 가나아트, pp. 89-165.
119. 최정민(1994) 움스테드 양식이 한국현대조경 작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0. 최정민(2006)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경(조경비평 봄, "봄, 조경 사회 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조경, pp. 34-61.
121. 최창규(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22. 탁석산(2000)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123. 탁석산(2001) 한국문화의 정체성(김민수, 김성복 편, 디자인문화비평 05). 서울: 안그라픽스, pp. 200-213.
124. 플러스(1997) 이 시대 왜 다시 한국성인가. *플러스* 9705.
125. 한재수(1987) 건축의 한국적 원형과 본질을 생각하기 위한 몇가지 관점에 대한 소고. *공간* 8706.
126. 홍가이(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27. 환경과조경(1993) 특별기획 '한국형 도시공원의 개발 모색'. *환경과조경* 9303-9307.
128. 환경과조경(1997a) 특별기획 '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계획'. *환경과조경* 9706.
129. 환경과조경(1997b) 특별기획 '한국조경, 과연 철학이 깃들어 있는가?'. *환경과조경* 9707.
130. 황일인(1987)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8709.
131. Boulesteix, F.(2001) 이향, 김정연(역), 착한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울: 청년사.
132. Copi, I., Cohen, C.(2000) Introduction to logic. 박만준, 박준건, 류시열(역), 논리학입문. 서울: 經文社, 2000, pp. 123-132.
133. Foucault, M.(1971) (L)Ordre du discours. 이정우(역) 담론의 질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134. Hall, S.(1994)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Williams, P. & Chrisman, L. eds. Colonial Discourse &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N.Y.: Columbia Univ Pr. pp. 392-403.
135. Hobsbawn, E.(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136. Kevin, R.(1997) Global Times: What in the World's going on?. ed: P. Gay, Production of culture/Culture of Production, London, Sage.

137. McLuhan, M.(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김성기, 이한우(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민음사, 2002.

원 고 접 수: 2007년 9월 28일

최 종 수 정 본 접 수: 2007년 10월 20일

3 인 의 명 심 사 필